

True Mother's Message at the 1st Anniversary of the WCLC

Dr. Hak Ja Han Moon, affectionately known as True Mother, virtually delivered this message on December 5, 2020, at the Rally of Hope to Celebrate the 1st Anniversary of the World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for the Realization of a Heavenly Unified World.



My Members of the clergy from around the world and members of the American clergy with ACLC, I give you my warmest greetings as we celebrate this first anniversary of WCLC.

오늘 우리는 섭리의 진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했듯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했습니다.

Today, we are at a point in time when we must welcome the truth of God's dispensation and a new era. Just as the Bible says, new wine must be put into new wineskins.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난 문제들을 놓고 볼 때, 특히 코로나 대 확산으로 세계가 소통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늘이 바라고 인류가 바라는 소원은 통일된 세계입니다.

Throughout the world today, serious problems that words cannot describe are arising. Most notably, as the coronavirus continues to spread, we face a situation where face-to-face communication is all but stopped. Even in such a situation, both God's desire and the desire of all people is to see a unified world.

그래서 나는 하늘 섭리에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의인이 되라 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꿈을 인간과 함께 지상에서 이루려 하셨습니다.

I would like to speak about the truth of God's providence, therefore. I have called upon you to become the righteous people of this time.

Our Creator wanted to realize His dream on earth together with humankind.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잘 성장하여 완성한 자리에 창조주께서 함께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시조가 되야(되어야) 할 아담과 해와는 그리 되지 못하여 오늘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세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For this reason, He gave human beings a responsibility to accomplish in life. His desire was for us to grow our hearts well and perfect our love, then live together with Him, our Creator. Yet, Adam and Eve, the first human ancestors, were unable to do this, and they made a world that in the present time has no relationship with God.

창조주께서는 영존하십니다. 당신의 창조 또한 영원합니다.

The Creator is eternal. Everything He created is also eternal.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늘은 원치 않는 구원섭리 역사를 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힘들었다 하는 예는 이스라엘 민족 4천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Looking from this perspective, God had no other recourse than to carry out the providence of salvation—which He wished he did not have to do. We know how difficult that history has been, one example being the 4,000-year history of the people of Israel.

그 때에 맞춰서 중심인물,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주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으면 4천년이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에굽고역 할 때에 모세로 인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In keeping with those times, God sent His central figures and prophets, and promised to send the Messiah. But how difficult this process must have been that it took God 4,000 years! There was the time when the Israelites were held in slavery in Egypt and gained their freedom through Moses.

하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켰습니다.

Heaven guided the Israelites with the miracles of the pillar of cloud and pillar of fire.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할 곳은 가나안 이었는데 어찌하여 위대한 광야에서 40년을 허송해야만 했을까요? 중심인물에 대한 절대적으로 하나되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결과입니다.

The Israelites had to travel to Canaan. Why, then, did they have to waste 40 years in the wilderness? This was the result of their being unable to unite with the central figure—with whom unity was an absolute necessity.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써의 주인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천년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독생자라 하였습니다.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In other words, they lacked a sense of ownership of their position as the people of Israel. Even so, after 4,000 years, God sent the Savior, the Messiah, through this people. He said “This is my son, my only begotten Son.” Why would God send His Son to us?

여기에 중심인물으로써 책임을 해야 될 사람은 마리아와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설 자리는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고 “다시 오마” 했습니다.

At that time, as central people in God’s providence, Mother Mary and the religious leaders had key responsibilities. Yet they were unable to complete those responsibilities. As a result, Jesus had no footing on which to stand. He had no option but to go the way of the cross; yet he promised to return.

다시 와서는 어린양 잔치를 한다 했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오마” 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고 창조주의 이상도 몰랐습니다.

Jesus said he would come again to conduct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The early followers waited for Jesus based on his promise to return,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Christianity. However, they did not know the true essence of Jesus, nor the Creator’s ideal for humankind.

사도들에 의해서 출발이 되었으나 오랜 시간 신앙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속에 신앙을 강조하게 되니 많은 문제를 낳게 됐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기독교 배경을 통해서 “다시 오마” 했기에 하늘은 종교개혁을 허락하셨습니다.

Christianity began through the apostles, but during a long period of practicing the faith, the emphasis on a more human-centered system of faith led to many problems. As Christ had said he would return based on Christianity, God allowed the Reformation to occur.

루터의 시작으로 칼빈이 종교개혁의 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로마 의회에 논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독교 강요를 말하게 됩니다. 개신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Martin Luther began the Reformation and John Calvin brought it to fruition. At the same time as Luther published his 95 theses, and they were sent to Rome, he was speaking about the oppression of people’s faith. The Protestant Church began from this point.

그때, 유럽의 청교도들은 하늘을 자유롭게 모실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갈구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새로운 천지로 출발하게 됩니다.

In those days, the Puritans in Europe were longing for the freedom of faith by which they could freely worship

God. This led them to set out for the new world where they could express their faith freely.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첫번째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먼저 지었고 후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개인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In 1620 they journeyed to America, and the very first thing they did was build a chapel where they could worship God. Then for the education of future generations they built a school. Only after this did they build their own homes.

그 말은 미국의 출발은 하늘을 모시는 나라가 되겠다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의 화폐에도 In God We Trust 라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으로 400년을 맞게 되는 미국의 역사는 많은 소용돌이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This is to say, the starting point of the United States was people's resolve to build a nation that served God. That is why we see the statement "In God We Trust" even on American money today. The United States, however, has encountered a lot of storms during the 400 years of its history.

북장로회에 캐나다와 함께 장로교가 탄생되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써 과거 천주교와는 달리 신도들이 함께 하늘을 모시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목사들이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With the formation of the Northern Presbyterian movement in connection with Canada, pastors, elders, deacons and believe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movement were able to attend God more freely than they could under the Catholic Church in earlier times. On that basis, many pastors began going out to the world.

그때 대한민국에도 평양을 중심삼고 장로교회가 폭발적인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은 약속하신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기독교가, 일류가 기다려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다시 오마" 하여 어린양 잔치를 한다 하였으니 그 상대가 탄생되어야 할 시점에 칼빈이 1543년에 선포했듯이 그 후 400년이 되는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During that time, in Korea, the Presbyterian Church in Pyongyang saw explosive growth under God's providence. It was then that Christianity stood in the position to see God's promised fulfillment of the providence. Jesus Christ, whom all humanity was waiting for, had said he would come again and conduct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The birth of the counterpart of the returning Lord was to happen 400 years after Calvin's exhortation for reformation in 1543: God's only begotten Daughter was born in 1943.

하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한국 기독교와 한국이 2차대전 직후에 냉전이 시작되면서 한국은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민주와 공산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민주주의는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북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남하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1945년에 해방이 됐고 1950년에 동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God's providence is mysterious. Korean Christianity, and Korea itself, became divided between north and south at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right after World War II. It was a division between communism and democracy. Democracy in South Korea was still developing. North Korea, however, was fully ready, preparing to invade the South. Korea was liberated in 1945 and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Yet there is evidence that God was with us.

그리하여 6·25 동란은 그야말로 하늘이 함께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후로 1960년에 참부모가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 여러 대륙에서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많은 나라들이 지배당하던 나라에서 해방이 됩니다.

The Korean War was indeed a holy war in which God was present. After that, in 1960, True Parents' advent took place. Many countries that had been under colonial rule, particularly those in Africa, became independent and were liberated.

인류가 소원하고 하늘부모님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상의 참부모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를 중심삼은 인류는 한 형제의 자리에 있게 되니 더이상의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Through the advent of the True Parents on earth that made possible the realization of humanity's hopes and Heavenly Parent's dream, all people have become brothers and sisters under these True Parents. Because of this, nations must no longer rule over others.

그러나 하늘의 섭리는 기독교 기반이 환경이 되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참부모의 길은 60년이 마치 광야 노정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축복가정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In the situation where God's providence did not have the support of the Christian foundation, True Parents' path over the past 60 years has been like a course through the wilderness. Even so, as we are the Parents, we have done our best, and thus we have nurtured many blessed families around the world.

인류가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참부모를 통하지 않으면 못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참부모를 통해서 중생부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인류의 하늘 부모님 이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나아 갈 수 있는 길을 참부모는 60년간 넓혀왔습니다.

Only through the True Parents can humanity return to God, our Creator. By this I mean that people need to be born again through True Parents; that is, through the process of the Marriage Blessing, under God our Creator. God is the Heavenly Parent of humankind. And for 60 years True Parents have been widening the road so that people can become the children of Heavenly Parent.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의 78억 인류가 하늘 부모님이 인류가 소원하는, 인류가 만나야 하고 찾아야 하는 부모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이것을 알리고 그들을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특히 미국의 성직자와 전 세계 성직자들이 통일된 하나의 심정으로 인류를 품고 인도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And yet, the 7.8 billion people of the world still do not know about these Parents, for whose coming Heavenly Parent had longed and whom all people need to meet and discover.

It is all of you, particularly religious leaders in America and throughout the world, that must let people know about True Parents, and lead everyone to become Heavenly Parent's children. You have the responsibility to embrace and guide all people with one united heart.

그 책임은, 책임의 완성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했습니다. 과거 인간중심으로 시작된 모든 것을 버리고 참부모와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늘이 함께하신다는 말입니다

When you fulfill that responsibility it will create a new history. As I have mentioned, new wine should be put into new wineskins. I am saying that God will be with us only when we let go of everything of the past that has human-centered origins and advance to a position that focuses on True Parents and our Heavenly Parent.

나는 말하고자 합니다. 하늘을(은) 얼마나 긴박하게 기다려 오셨는가를 알게 합니다. 특히 금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더 이상 하늘이 시간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400년을 맞이하는 미국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I would like to say this: We have come to know the urgent heart with which God has been waiting. Notably,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this year is a warning from God that there is no more time. In particular, in celebrating this 400-year milestone in its history, America must regain its original founding spirit.

하늘부모님이 떠나는 미국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미국을 축복하고 강대국으로 세계 앞에 우뚝서게 역사하심은 78억 인류를 품고자 하신 것입니다.

The United States must not become a nation wherein our Heavenly Parent can no longer dwell. God blessed the United States and made it a powerful nation in front of the world so that He could embrace all of its 7.8 billion people.

그 하늘의 수고가 참부모의 수고가 더 이상 떠나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2차대전 직후에 미국의 승리는 자유세계에 커다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켜야 할 하늘을 잊어버리고 자만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까.

We must no longer allow God and True Parents' hard work to be in vain. Right after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victory brought tremendous hope to the free world. The United States must uphold God; yet this nation has forgotten God, and when it acted with pride so many problems arose.

가정파탄, 청소년문란, 마약문제, 동성애 이것은 과거 로마제국이 로마의 길은 세계로 통한다 하였으나 로마제국이 멸망할 때와 같은 징조가 미국에 일어나고 있을 때 참부모이기에 미국에 건너가 40년간 투입하고 투입했습니다.

Family breakdown, juvenile delinquency, drug problems, sexual immorality and abuse were signs of the impending collapse of the Roman Empire, whose roads once stretched out to the world. When these same sign of breakdown arose in America, because we are the True Parents we moved to the United States and, for almost forty years, continuously invested our effort there.

떠나시려는 하늘을 붙들고 마지막 미국이 책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맨하탄(맨해튼) 거리를 거닐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많은 히피, 젊은 청년들이 참부모를 따르게 되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We clung on to God, who was at the point of leaving America, and implored Him to give that nation another chance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In those days, as we walked the streets of Manhattan, our tears did not stop falling. At that time, lot of young people in the United States—even hippies—followed True Parents, and we began to write a new history.

그들이 잘 성장하여 1975년도에 세계로 선교 나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임지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하늘부모님의 심정과 참부모를 알기에 그들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이 되겠다 딸이 되겠다 결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They matured in their love, and in 1975 many went out as missionaries to the world. Among these, many are still continuing to take responsibility in their mission countries. As people who deeply understand Heavenly Parent's heart and understand True Parents, they continue to labor until this day with the resolve to become sons and daughters who fulfill Heavenly Parent's dream, even until their very last breath.

바로 지금이 이 미국이 하늘이 축복했던 미국이 책임하여 결실을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America today, which God has blessed, must, through fulfilling its responsibility and bearing results, be able to write a new history.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미국의 위정자들 용서하고 하나되십시오. 화합통일만이 미국이 영원히

영존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늘이 미국에 축복한 미국이 책임 할 수 있는 자리에 설수 있기를 바라서(바래서)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성직자 여러분과 세계성직자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의 목적은 하나, 절대자 창조주를 모시는 그 뜻에는 같습니다.

Hence, I would like to say the following: Please forgive the American politicians and create unity. The United States can maintain its existence only through harmony and unity. God has been waiting for the United States, the nation He blessed, to stand in a position wherein it can fulfill its responsibility.

Therefore, speaking to all pastors, members of the clergy in America and throughout the world: There are many religions in our world today. And all these faiths have one purpose; they all share the same will to serve and attend the Absolute Being, our Creator.

이에 창조주를 바로 알리고 창조주가 바라시는 세계평화 인류한가족 통일된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한가족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소리를 높여 외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Hence, I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let people know properly about our Creator, and work to realize a world of peace wherein all people live in unity as one family of humankind, One Great Family under our Heavenly Parent. Please raise your voices and work together. I give you my blessing for this..